

# 중국어화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실태

— 모국어 간섭현상을 중심으로

김경천\*

## <目 次>

1. 서론
2. 어휘상의 오류
3. 문법상의 오류
4. 표현상의 오류
5. 결론

## 1. 서론

대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사용 기능 가운데 쓰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 문자언어가 음성언어 혹은 구두언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문자언어는 구두언어에 비하여 통사적으로 또 어휘적으로 형식을 중요시하고 복잡한 구문이 많이 사용된다. 문자언어에서는 종속절이나 긴 명사구 혹은 부사구가 많이 쓰이고, 문장 당 어휘수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어휘밀집도도 더 높다. 또 구두언어에 비해 반복적 표현이나 잉여정보가 적어 내용이 압축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구두언어는 의미전달을 손짓, 표정, 억양 등 언어외적 요소에 일부 의존할 수 있으나, 문자언어에 있어서는 의미전달이 오로지 문자적 표현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다.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둘째, 문자언어를 사용하는 읽기와 쓰기 중 쓰기가 더욱 어려운 것은 언어의 학습에 있어서 이해영역과 표현영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영역이란 문자로 보거나 음성으로 듣고 그 의미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를 말하고, 표현영역이란 실제로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범위를 말한다. 외국어의 학습과정은 먼저 음운, 어휘, 통사규칙, 표현법 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문법과 관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이해를 통하여 해당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쌓은 다음, 그것을 알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외국어에 대한 모든 지식과 감각이 바로 해당외국어를 이용한 언어적 표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의 표현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감각 중에서 많이 접하여 친근해진 것, 사용에 자신이 있는 것, 많이 사용되는 것 등만을 이용하여 자신이 습득한 규칙으로 이를 다시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에 있어서 그 영역을 넓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와는 다른 별도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쓰기는 바로 이 표현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쓰기는 심리적, 언어적,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기능이며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이 매우 요구되는 기능이다.<sup>1)</sup> 더군다나 중국어<sup>2)</sup>와 한국어는 계통론적으로는 각각 漢藏語族과 알타이語族에 속하며, 형태론적으로는 각각 孤立語와 膠着語(添加語)이면서, 語順的 유형분류로는 각각 SVO구조와 SOV구조에 해당한다. 즉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간의 공통점보다는 이질성이나 상이점이 더 많다고 할 만큼 언어간의 상관성이 적다. 이러한 점이 중국어권의 한국어학습자가 한국어로 작문을 할 때 더욱 많은 장애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쓰기능력의 배양에는 효율적인 교수법이나 학습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쓰기 교육은 문법학습의 보조수단으로 인

1) 허용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5, 7, .p.142, pp.382-383 참고함.

2) 현재 중국에는 56개 민족의 언어가 존재하므로, 중국어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의 한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漢語'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는 '漢語'가 중국어를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굳이 한어와 중국어를 구별하지 않는다.

식되어, 주로 학습한 문법이나 구조를 연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쓰기교육은 단지 필사기술과 문법빈칸 채우기, 읽기이해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 등으로 행해졌다. 이 시기의 언어교사들은 쓰기를 문법을 연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하고, 많이 쓸수록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믿었다.<sup>3)</sup> 그러나 글이란 단순히 문법에 맞는 말을 글자라는 기호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쓰기는 독특한 수사학적인 규칙들과 연관되어 있고 글의 영속성이나 독자와의 거리 등 말하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특히 글쓰기는 생각과 설계 및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기술은 천성적으로 타고 나는 기술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 어떠한 기술과 능력들이 요구되는지를 잘 알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sup>4)</sup> 따라서 이러한 지도를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수학습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중국어화자들이 한국어 작문을 할 때 나타내는 오류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목적외국어의 학습에 모국어의 영향을 인정한 대조가설이나 중간언어이론을 받아들여 모국어의 전이와 간섭에 의한 오류를 고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외국어 쓰기에 있어서 학습부족이나 기억착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 오류는 개인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며 또 노력여하에 따라 쉽게 수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자가 집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공통적 오류는 배후에 필연적 이유가 있기 마련일 텐데, 그 필연적 이유가 바로 모국어의 전이 혹은 간섭이라고 본다.<sup>5)</sup>

간섭 개념은 제2언어 습득에 제1언어가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대조가설에서 나왔다. 즉 외국어학습자가 모국어적 관습을 외국어 습득 과정에 지속적으로

3) 김정숙,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4) 허용 등, 앞의 책, p.382 참고.

5) 원진숙은 “쓰기 기능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L1)와 학습해야 할 목표언어(L2)로서의 한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차이-어휘, 문법, 수사구조와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학습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박영순 외,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2008. 2, p.457 참조.

전이한다는 것인데, 이 가설의 핵심적 개념이 간섭개념이다. 제1언어와 제2언어 두 언어에 있는 동등한 언어요소나 규칙은 쉽게 그리고 오류 없이 습득이 되는 반면에 두 언어에 서로 상이한 언어현상은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오류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자를 '긍정적 전이', 후자를 '부정적 전이' 혹은 '간섭'이라고 한다. 이 전이와 간섭 개념은 중간언어이론에서도 받아들여져 외국어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결국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외국어 학습에 활용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들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유를 밝혀서,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이를 분명히 인식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 오류의 상당부분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3학년 학생 29명과 4학년 학생 23명이 작성한 한국어 작문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3학년의 경우에 이미 6개 학기에 걸쳐 43학점에 달하는 한국어학 관련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중이며, 4학년의 경우에는 59학점의 한국어학 관련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 중이다. 선수과목을 합할 경우 이보다 최대 15학점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들은 매주 최소 15시간 이상의 한국어학 관련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능력시험(KPT)나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의 3급과 4급 정도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인과의 일상적 의견교환이나 전문영역에서의 간단한 의견발표 등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어떤 방면의 오류를 다룰 것인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Raimes는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구성요인을 9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내용, 구성, 문법, 구문, 어휘, 맞춤법, 과정, 독자, 목적이 그것이다.<sup>6)</sup> 여기서는 이중 어휘선택, 문법, 구문 등 이 세 방면의 오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아울러 구성상의 오류도 함께 파악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방면의 오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외국어 구사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6) Raimes, Ann, *Technique in Teaching and Writing*, p.5. Oxford Univ. Press. 허용 외, 앞의 책, p.385에서 재인용.

다만 맞춤법의 오류는 언어능력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오류양상도 비교적 단순하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 2. 어휘적 오류

### 2.1 중국어 어휘의 轉用

- (1) a. 그 소설책의 주인공에 따라 자극적인 극정을 느낀다.(A) - 劇情
- b. 왜냐하면 제일점은 이 세계가 공평적이다.(D) - 第一點
- c. 그 신발은 조금 고장나서 내가 수리해드릴게요.(B) - 修理
- d. 경치를 즐기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향수이다.(A) - 享受
- e. 사형범의 죽음은 그의 만들었던 죄과에 대해 종지가 아니다 - 終止
- f. 그 고민한 공부하는 동안, 반 친구들 간에는……(A) - 苦悶
- g. 그 날의 방학 후에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A) - 放學

위의 예문 중 1a나 1b는 한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중국어의 어휘를 그대로 한국어 쓰기에 적용한 경우이다. 1c와 1d, 1f, 1g의 '수리', '향수', '고민', '방학'은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하는 어휘지만 서로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1e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하는 어휘로서 의미는 같지만 관용적으로 쓰임이 다른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데, 모국어의 개념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어휘를 못 찾았거나 알지 못하여, 또는 중국어의 어휘가 곧 한국어의 어휘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 2.2 번역 짝의 적용

- (2) a. 그 신발은 조금 고장나서 내가 수리해드릴게요.(B) - 壞
- b. 할머니께서 신발을 입은 후에 즐겁게 이렇게 말했다.(B) - 穿

- c. 발바닥은 넓고 모양이 좀 변해서 어울리는 신발을 찾기 힘들다.(B) - 合適
- d. 그냥 두 켤레 사지요. 갈아신을 수 있어요.(B) - 換
- e. 차에 시어머니를 실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B) - 載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모국어의 개념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작문한 경우이다. 즉 중국어의 ‘壞’ ‘穿’ ‘合適’ ‘換’ ‘載’를 각각 ‘고장나다’ ‘입다’ ‘어울리다’ ‘갈다’ ‘신다’와 같은 그 어휘의 기본적 의미로만 번역하여 작문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모두 잘못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번역 짝’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휘 학습의 초기에 학습자는 목표 언어의 단어와 모국어로 된 번역을 짝 연합으로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모국어를 통해 아는 어휘의 개념들은 약간의 조정만으로 제2 언어 개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런 이유로 상당 양의 초기 어휘가 번역 짝으로 암기되어 습득된다.<sup>7)</sup> 예문에서도 번역 짝으로 암기된 한국어 어휘가 바로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통제적 쓰기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몇몇 특정어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국어에서 넓은 의미의 폭과 넓은 사용의 폭을 지닌 개념일수록 번역 짝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모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조적 관점에서 두 언어의 어휘의 차이를 인식하여, 되도록 많은 어휘리스트를 암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사이에는 한자어의 경우 ‘부모-父母’와 같이 형식과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신문-新聞’과 같이 형식은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 ‘뉴스-新聞’과 같이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선배-學長과 같이 유사한 의미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두 언어의 어휘를 정확히 리스트화하여 되도록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7) 허용 등, 앞의 책 p.140 참고.

### 3. 문법적 오류

#### 3.1 조사의 생략

- (3) a. 요즘 우리는 신는 천신발□ 닳아서 해진 것을 발견했다.(B) - 이
- b.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형제는 선진국인가 아닌가□ 관계가 별로 없다.(D) - 와
- c. 나는 체육과□ 대해 아주 재미없는 수업이□ 생각합니다.(A) - 에, 라고
- d. 나는 진자 성공히 한 숨으로 25미터□ 다 수영했습니다.(A) - 를
- e. 법무부□ 사형제□ 심판하는 사건은 꼭 극악무도하는 사람이다.(D) - 가(또는 에서), 를(또는 로)
- f. 반장을 맡은 사람이 저□ 아닌데 우리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저한테 맡겼다.(A) - 가, 의, 을

위의 예문을 보면 쓰기에서의 조사의 생략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특히 3c, 3e와 3f의 예문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조사의 생략은 중국인의 한국어 쓰기에서 매우 집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보조사(또는 특수조사, 또는 한정사)가 틀리게 사용될지언정 거의 생략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는 격만을 나타내고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격조사가 거의 없다는 사실<sup>8)</sup> 이러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중국인학습자의 언어감각 속에 격조사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결국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격조사의 생략이라는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3c에서 '체육과 대해'는 중국어로는 '對(於)體育課'로서 '介詞'와 '賓語'가 직접 결합되어 있으며 중간에 조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한국어로 표현될 때 쉽게 '체육과 대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주어와 술어, 동사와 목적어, 관형어와 중심어 등이 결합할 때 조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감각이 한국어 쓰기에 간섭을 일으켜

8) 중국어에는 構造助詞 '的', '地', '得', '所', '等', '給', '似的' 등이 있으나, 한국어의 격조사와는 그 개념과 기능이 다르다.

종종 조사를 생략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의 조사의 생략은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어의 경제적 원리로서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구어에서 잘 발생한다. 그러나 쓰기에 있어서는 조사의 생략이 특수한 경우나 관용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고 문장에서 체언 또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일정한 자격으로 기능할 때 반드시 그에 맞는 조사를 골라 쓰는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 3.2 경어법의 오류

- (4) a. 할머니를 차로 (ㄱ)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 자리에 앉은 (ㄴ)개는 즐겁게 이렇게 물었다.
- b. 할아버지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 c. 시어머님은 신발을 신은 후에 기쁘게 말했다. “아! 가볍네요! 아주 편한데요. 얼마예요? 비싸죠?”
- d. “어, 이 차표는 어제 차표야.” 나는 그 남자에게 소리쳤다.
- e. 그래서 점원에게 “그냥 그녀에게 신어요. 낡은 신발은 필요없어요”라고 말했다.

예문에서 4aㄱ과 4b는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각각 객체경어법과 주체 경어법을 위반하고 있다. 4c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고 4d는 한 성인이 다른 모르는 성인에게 하는 말인데, 모두 상대경어법을 어기고 있다. 또한 4e는 며느리가 점원에게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경우인데, 적절한 호칭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에서 경어법의 오류도 매우 광범위 하면서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한국어는 상대방이나 제삼자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어와 매우 달라 중국인은 이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에 매우 곤란함을 느낀다. 그와 같은 이유로 4e의 예문과 같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심지어는 한국어 작문에서 아버지를 너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흔히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 확실히 한국어의 경어법은 정교하게 세분되어 있고 또 매우 체계적이다.<sup>9)</sup>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일부 어휘나 표현에 의지하여 나타내는 경어적 표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구조 상 상대를 존대하거나 하대하는 문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어의 존대법을 이해하고 익히기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영역이며, 이에 따른 모국어의 간섭이 한국어 작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에게 경어법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반복적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3.3 '-게' 부사절의 오류

- (5) a. 시어머니께서 그 신발을 신어 기쁘게 이렇게 말했다. -高興的
- b. 시어머님은 만족하게 웃었다. -滿足地
- c. 그 말을 듣고 나는 긴장하게 집에 들어갔다. -緊張地
- d. 우리는 다 궁금하게 개를 빤히 보았다. -疑問地
- e. 나는 욱금한테 조심하게 걸어야 된다고 일깨웠다. -小心的
- f. 새 한두 마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 당황하게 날아간다. -慌張的

중국어에서 구조조사 '-的', 혹은 '-地'가 붙은 부사어는 보통 동작의 주체가 동작을 행하는 모양을 묘사하는 뜻을 지닌다.<sup>10)</sup> 중국어화자는 이러한 부사어의 뜻을 한국어로 작문할 때 거의 일률적으로 '-게'라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의 예문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게' 형식의 부사절은 동작 모양의 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할 정도로', 또는 '-할 때까지'의 의미를 지닌다.<sup>11)</sup> 따라서 중국어의 '-的'/'-地'과 한국어의 '-게'는 일대일로 의미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작문을 할 때 '-的'/'-地'를 한국어의 '-게'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어의 부사어를 같은 형식으로 처리하려는 간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아는 것은 작문에서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출판부, 2005, p.208 참고.

10) 劉月華等著, 片山博美等譯, 《현대중국어문법총람》 p.423 참조, くろしお出版, 1996. 6.

11) 이익섭, 앞의 책 pp.375-376.

중국어의 부사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표현법을 익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와 같을 때 정확한 한국어 쓰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 3.4 시제의 오류

- (6) a. 살인범이 사형을 통해서 진짜 자기의 짓는 죄를 반성할까 - 지은
- b.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렀다. - 돌아올
- c. 거기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랐다. - 모른다
- d. 살인자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듯이 우리는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했듯이
- e. 어렸을 때 나도 그렇다. - 그랬다.
- f. 그날은 비가 많이 온다. - 왔다.
- g. “우산을 안 가져와요?” - 왔어요

중국어에서 시제는 시간부사로만 나타낼 뿐이며 한국어처럼 용언의 활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중국어화자들이 한국어 쓰기를 할 때에 시제의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예를 들면 6c나 6d처럼 과거에 발생한 일이면 무조건 과거형의 어미변화를 사용하는가하면, 6d나 6e, 6f에서와 같이 문장 내에 과거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도 술어를 현재형으로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다수는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야 할 경우에도 6g처럼 동사나 형용사의 원형을 쓰거나 현재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이에 대한 학습을 이미 거쳤음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술어의 시제적 표현이 없는 모국어의 간접한 결과라고 하겠다.

## 4. 표현적 오류

### 4.1 중국어 직역으로 인한 오류

- (7) a. 아이들이 공원에서 한 마리 개를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 一條狗  
b. 나는 나가고 싶은 순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 當要出去的時候  
c. 봄도 꽃이 피는 계절이다. - 春天也是花開的季節  
d. 해가 오르는 날에 꽃은 어떻게 예뻐도 비가 오면 이런 경지에 빠졌다. - 落  
到這樣的地步  
e. 대만은 비가 잘 오는 곳이다. 특히 타이페이였다. - 特別是臺北  
f. 날씨가 좋아서 며칠동안 비가 하나도 없었다. - 一點兒雨都沒有

위의 예문들은 모두 먼저 머릿속에서 중국어로 문장을 짓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쓰기를 한 경우이다. 그러나 중국어적 표현을 직역하느라 한국어의 체계와 관용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초중급 단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작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모국어를 직역해서는 안 되며, 그 모국어의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표현을 찾아야 한다. 7a의 한 마리 개는 중국어의 어순을 따른 것으로 한국어에 있어서는 어색함을 면할 수 없다. 7c는 본래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뜻을 의도한 것이지만 두 의미를 각각 나타내는 중국어 문장이 같은 관계로 이를 잘못 옮겨 '봄도 꽃이 피는 계절이다'가 되었다. 즉 중의성이 있는 문장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7b와 7d와 7e는 잘못 번역하여 한국어의 의미도 통하지 않게 된 경우이고, 7f는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에 맞지 않는 경우이다.

### 4.2 구문 번역 오류

- (8) a. 어렸을 때 매번 비가 왔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다.  
b. 왜냐하면 특히 이럴 때 하늘하고 노는 그림처럼 이렇게 예뻐 보인다.  
c.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에 많은 일을 하기가 불편하다. - 인위  
d. 비가 온 줄 몰랐으니까 우산을 안 가져왔다.

- e.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정말 걱정했다.
- f.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다 일을 있으니까 나를 찾지 못했다.
- g. 비오는 날은 아주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기 싫었다.
- h. 커피색의 신발을 이미 보내니까 남편은 시어머님을 데리고 그 신발을 가지러 갔다.

위의 예문과 같은 오류도 매우 여러 사람에게서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은 중국어의 ‘每當……(的時候)’, ‘因爲……’, ‘……, 所以……’, ‘……, 於是……’ 등의 구문을 사용하여 먼저 작문을 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구문에 해당하는 한국어적 표현을 숙지하지 못하고 중국어 어휘의 자리에만 기계적으로 한국어 어휘를 대입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도 모국어 간섭의 결과라고 하겠다.

## 5. 결론

언어를 통한 의사의 교환은 주지하고 있다시피 언어의 접수와 전달의 반복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중 접수에는 언어의 영역 중 듣기와 읽기가 해당되고 전달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해당된다. 또한 언어에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있는데, 음성언어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하여 교류되며 문자언어는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교류된다. 이중 요즈음의 외국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 즉 회화에 그 중심이 놓여 있는 듯하다. 외국어 교육자나 외국어 학습자 모두 회화를 중시하고 회화 능력의 배양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된 데에는 회화체로서 외국어의 기본적인 어휘나 문형, 표현 등을 더욱 쉽게 익힐 수 있거나 외국어 학습의 일차적 목적이 회화를 통한 직접적인 인적 교류라고 인식하거나와 같은 나름대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회화 즉 듣기 말하기만으로는 외국어 학습의 기능과 목적 중 일부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또 그것만으로는 외국어 능력의 질적 고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읽기와 쓰기의 능력이 동시에 배양될 때 외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에 완전히 부응할 수 있으며 고급의 외

국어 구사능력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거나 서로 피드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각 영역의 내실화를 더욱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어 화자와 중국어 화자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넘어, 기관과 기관, 회사와 회사와 같은 단체의 공적 사무적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 능력의 배양은 필수이며, 앞으로 서로간의 공식적 실무적 교류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읽기 쓰기에 대한 중요성은 마땅히 점차 강조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화자가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저지르는 오류를 어휘적 방면, 문법적 방면, 표현적 방면 등 세 부류로 나누어 그 실태를 분석하고, 그중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오류의 발생 원인을 대조가설이나 중간언어이론의 '모국어의 전이 혹은 간섭'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결과, 오류 발생의 원인은 만족스럽게 해명되었으며, 이로써 최소한 중국어화자의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는 모국어의 전이 혹은 간섭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며 또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나아가 쓰기와 같이 언어의 전달 기능에 속하는 말하기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화자에게 이러한 현상의 존재를 주지시키고 또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모국어의 전이 혹은 간섭현상으로 인한 오류의 구체적 개별내용을 리스트화하여 이를 단계별로 적절히 수준을 나누어 교수-학습이나 교재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중국어화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방법적인 면에서 한층 더 효율성을 떨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허용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5. 7.  
김정숙,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박영순 외,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2008. 2.

이익섭, 《한국어문법》, 2005, 서울대출판부.

劉月華 等 著, 片山博美 等 譯, 《현대중국어문법총람》, くろしお出版, 1996. 6.

Raimes, Ann, Technique in Teaching and Writing, Oxford Univ. Press.

### <<中文提要>>

這篇文章是將學習韓國語的中國語話者在寫作韓國語時時常犯下的錯誤分為三類: 語彙上的錯誤, 語法上的錯誤, 表現上的錯誤. 這篇文章還通過分析這三類錯誤的詳細內容, 表明出其中一些集團地持續地發生的錯誤是來自母語的干涉或者轉移作用. 這樣的解釋覺得很成功, 很合理, 可以相信在中國語話者的韓國語學習上存在著母語干涉或者轉移現象. 所以, 此後需要調查這種現象惹起的具體內容而把它作成目錄來, 在中國語話者方面必須注意這種現象而學習, 在教學方面必須注意這種現象而講課, 在教材方面必須注意這種現象而開發. 這樣, 對中國語話者的韓國語教育可能是會進一步發展的.

**關鍵詞** : 중국어화자, 한국어, 모국어 간섭, 대조가설, 중간언어이론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